

마지막 기회다

작성일 : 2012년 7월 1일(일) 밤 11시경

작성자 : 임만길

[마지막 기회의 기도가 시작되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뜨거운 마음이 없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여쭙어 봤을 때 주신 감동입니다.]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이 마지막 기회의 기도의 때,
너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.

그 깨달음을 향한 길과 방법은
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다.

그 비밀의 문은 첫째,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.

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?
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기도하여라.

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한
기도가 잘 안 되느냐?
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한
기도를 하게 해 달라고
기도해라.

기도를 위해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
눈이 잘 감기지 않느냐?
계속 생각해라, 계속 불러라, 계속 외쳐라.

생각하고, 부르고, 외칠 힘이 없느냐?
신음 소리라도 내어라,
몸부림쳐 그 몸부림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하여라.

마지막 기회다, 마지막 때다.

이 역사는 흘러간다.
개가 짖어도, 산이 막고 강이 막고 바다가 막아도
이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.

이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는
마지막 기회의 때가 시작되었다.

지금 갖추지 않으면,
지금 이 마지막 티켓을 얻지 못하면
이 열차는 곧 출발해 멈추지 않는다.

깨달아야 한다.

태초부터 지금까지,
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없을
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.

이 마지막 때,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
새로운 사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찾지 말아라.

내 사랑은 변함없다.
6천 년 이 역사를 지키며 이끌어 왔고
앞으로도 영원할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.

지금 이 때는
새로운 사랑을 찾는 때가 아니요,
너희들을 가리고 있던
구약과 신약의 무덤을 완전히 벗어나
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변함없을
나의 온전한, 그 사랑의 빛을 새롭게 받을 때다.

2012년이 지나고
섭리역사가 신약권을 완전히 벗어나
속도를 내 달릴 때
너희의 욕이 아직도 신약의 옷을 벗지 못하고
신약의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면
이 마지막 열차에 오를 수가 없다.

이 마지막 100일의 시간,
이 때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하면
이 마지막 열차를 탈 수가 없다.

시간이 없다.
100일 기도가 끝나도
3개월이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느냐?

역사의 때와 전환의 이치를 그렇게 배우고도
깨달아지는 것이 없느냐?

너희 선생의 그 기도와 조건으로

마지막 열차를 붙잡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을,
선생의 급박하고 간절한
그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?

이 열차가 한 번 출발하면
뒤따라올 열차는 아무것도 없다.

이 열차의 문이 한 번 닫히면
그 문을 다시 열 자는 아무도 없다.

여권이 없고 비자가 없으면
그 나라에 머물 수 없듯이,

지금 이 때 나 성자 본체와 그 분체를
제대로 알지 못하면
이 마지막 열차에 오를 수도,
성약성에 들어갈 수도 없다.

외국에 한 번 나가려면
비자 신청부터 비행기 티켓팅,
출입국 심사, 티켓 검사 등
절차를 다 밟아야 갈 수 있듯,

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
마지막 성약성에 들어가는 열차는
주일, 수요일, 잠언, 천국성령운동 말씀을 통해
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 줄 테니 걱정 말아라.

지금 너희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
바로 간절한 마음이다.

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여라.

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하며,
그 기도를 위해 신음 소리라도 내어라.

나는 마지막 열차 문 앞에 서 있다.

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
동분서주 몸부림치며
눈물로 생명을 찾아다니는 너희 선생,

이제 온 신입생부터
34년 섭리역사 함께 뛰어온

가정국, 장년부에 이르기까지
그 누구 한 명도 놓고 갈 수 없다며
기적 소리 올리는데도 타지 않고
이리저리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다니는 너희 선생,

너희들 다 태우고
마지막으로 너희 선생 올라타면
나는 이 열차 문 닫고 미련도 후회도 없이
온전한 성약역사, 천국을 향해 달려가련다.

이 마지막 기회의 때,
내 사랑을 온전히
깨달아 알아야 할 이 마지막 때,

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
마지막 구원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
귀 기울여 듣고 그곳을 향해
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나가라.

마지막이다, 마지막이다.

마지막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
삼위일체 성자니라.